

전주시, 추석맞이 민생안정책 수립

이웃사랑 나눔행사 · 지역경제활성화 등 8대 중점관리 분야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민생안정을 위한 8대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각 부서별 추석맞이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추석맞이 민생안정 8대 중점관리 분야는 △이웃사랑 나눔행사로 따뜻한

명절분위기 조성 △물가안정대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재난 안전사고 방지대책 △귀성·귀경객 특별 교통안전 대책 △비상진료 등 보건 및 환경 정비 대책 △추석명절 손님맞이 관광 대책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 불편 생활민원 현장 점검 △추석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등이다.

우선, 시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전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각급 기관단체 및 독지가, 기업체, 시민 들을 대상으로 후원자 발굴 및 연계활동을 벌이고, 모금된

위문금품을 포함한 지원목표액 3억 75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지원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맞이 유통질서 점검, 명절 성수품 등 18종에 대해 가격 모니터링 및 게시 등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와 전통시장 장보기, B.Y.전주·사회적기업·시니어클럽·장애인상품 홍보, 직거래장터 운영 등 전통시장 및 지역 물품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 추

석을 앞둔 지역경제에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다중이용시설 등 45개소에 대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도 만전을 기한다.

또한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715개소, 공공개방화장실 247개소, 가스시설 82개소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는 등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 행사가 31일 전주시청 로비에서 열린 가운데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

전주시 · 호남지방통계청, 청년통계 개발

일자리 정책 수립 등 기대

전주시와 호남지방통계청은 전국 최초로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통계를 개발했다. 특히 청년통계는 일자리 정책과 청년복지정책 등 전주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행정자료를 활용한 '전주시 청년통계'를 공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시정 발전 방향과 미래 성장 동력을 수립하

는데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통계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통해 청년통계를 준비해왔다.

전주시 청년통계는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저비용·고효율의 지역특화 정책 맞춤형 행정통계로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생산·분석했다.

이 통계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만

19~39세를 대상으로 전주시 내부행정자료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9개 기관 11종의 행정자료를 융·복합 인구, 주택, 복지, 고용 건강 등 5개 분야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청년통계 개발은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해 현장조사의 응답부담 및 조사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으면서 전수조사라는 장점으로 전주시의 시의성 있는 통계기반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된 지표의 보완작업을 거쳐 2년 주기로 생산해 시계열 자료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허위서류로 보험금 타낸 수입차 수리업체 적발

허위로 서류로 교환하지도 않은 차량부품 비용을 청구하는 등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수입차 수리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허위서류를 제출해 58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수입차 수리업체 대표 김모(4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5년간 전주에서 수입차 공식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교환하지 않은 차량 부품을 청구하는 등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 총 1745회에 걸쳐 59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탄소전문가 초청 특별 강연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주시 탄소산업 육성 전략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탄소산업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전주시의회 의원, 업계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해 탄소산업 육성 전략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강연회는 ▲전주시 탄소산업 발전추진(탄소융합기술원 경영지원실 유원재 실장) ▲탄소법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탄소융합기술원 전략기획실 송준혁 실장) ▲메가탄소밸리 사업소개 및 추진 계획(탄소융합기술원 신사업조정실 송범근 책임관)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진 뒤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로 이뤄졌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추석 자금 827억원 집행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자금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따른 추석명절 자금 소요액을 사전 파악한 결과, 공시비를 비롯해 총 82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비, 물품대금 및 보상금 등으로 88억원, 기초연금 및 영유아보육료, 경상비 등 기타자금으로 739억원 등이다. 시는 정기예금과 만기 예정인 자

금 등을 통해 650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통해 200억원 가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명절 이전에 신속히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이행 및 자금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재삼 전주시 재무과장은 "추석 명절 전에 신속하고 차질 없는 자금집행으로 시민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완산구, 개명신고 3시간 이내 처리

전주시 완산구는 9월 1일부터 개명신고 처리기간이 3~5일 소요되던 것을 3시간 이내 즉시 처리하는 고객중심의 '개명신고 즉시처리 스피드 행정 서비스'를 추진한다.

'개명신고는 중요한 신분사항의 변동을 가져오는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신분증명서 재발급, 인감 변경, 부동산·개인사업자·은행 명의변경 등의 후속절차가 다양해 변경 신청기간이 3-5일 소요돼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토로해왔다.

이에 완산구는 직접 완산구청을 방문해 개명신고서를 제출하는 완산구민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즉

시 처리하고, 신고접수 처리결과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유선 통보 후 민원인에게 변경된 신분증명서 발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명신고 당일에도 증명서 재발급과 각종 명의 변경 후속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명신고 즉시처리 스피드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 절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산구는 이번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에 앞서 혼인신고와 점입신고 등 시 접수처리,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등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를 돕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동물원 새이름 지어주세요

시, 9일까지 공모

전주동물원의 새로운 이름을 시민들의 공모를 받아 결정한다.

전주시는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전주동물원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해 1일부터 9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새 이름 공모는 전주동물원이 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에게도 널리 알리고 사랑받는 브랜드로 키워나가기 위한 BI(Brand Identity) 개발에 따른 것이다.

공모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동물과 교감하고 동물이 행복한 전주동물원을 나타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전주동물원만의 차별성이 있는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작품을 모집할 계획이다.

응모방법은 제안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주동물원(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보내면 되고 전자메일(ez1809@korea.kr)로도 접수 가능하다.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최우수상 1, 우수상 1, 장려상 3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며, 앞으로 개발될 전주시 BI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의 대표 동물인 '수탉'을 캐릭터로 정해 전주동물원만의 색깔을 담아내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어린이와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의 BI 개발을 추진 중이다.

BI는 향후 4개월간의 용역을 거쳐 자문위원과 시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동물과 교감하고, 동물이 행복한 전주동물원을 표현하는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생태동물원에 걸맞는 새 이름과 BI 개발 등을 통해 전주동물원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동물원은 올해 사자·호랑이사 환경개선사업으로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끌고 있으며, 현재 곰사와 늑대사 신속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js.or.kr *전자우편 : jvjs@hanmail.net